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웁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편75편1절 말씀)'

새해인가 했더니 벌써 훌쩍 일사분기가 지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그리고보니 올해는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신지 삼십주년째이네요.  
돌아보니, 굵이굵이 주님은혜요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으나, 한편 너무 미진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 투성이입니다.  
나름 열심 똬다고 했으나, 고교 공부마치고 일하고 돈벌러 대도시 마닐라나 외국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에, 재정난  
으로 더 시골로 이주하시는 분들.. 하여 늘 그 숫자가 그 숫자인듯 싶습니다. 그러나 숫자나 외형을 보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기에 보내주신 한분한분 금쪽같이 여기고 감사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교회를 멀리 떠나 계신 분들께도 주님께서 심령을 지키시고 삶을 붙들어주시고 예수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연약한 육체 탓에 하루하루 더욱 더 먼지로 지어진 질그릇 인생임을 절감하고 토기장이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드리고 사역하고 있어요.

1월에는 그만 원치않는 사고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쳐서 뇌진탕증세로 한동안 힘들고 정상이 아니었으나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무사했고 2월에 다시 쇠막대에 머리가 부딪쳐 걱정되었으나 또 주님은혜로 무사했네요.  
날마다 시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매년 선교지를 위해 사랑의 인술을 베풀어주시는 신실하신 집사님께서 방문하시어 이침으로 많은 통증환자들과  
열나는 환자들의 치유가 일어났고 특히 제 뇌진탕후유증이 이침으로 잘 치료되어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  
고 귀한 집사님의 헌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교에 비전을 품으신 귀한 권사님 모녀께서 리조이스선교지를 방문하시어 더위에 물도 부족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기쁨으로 선교지를 둘러보시고 가셨어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 리조이스선교지를 위하여 미래  
에 이루어지기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학교 리트리트에 주님 은혜 함께 하시어 '교회의 사명과 성경전체개관'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함께 리더들의  
협동심을 더욱 고취하고 각각 리더들의 장점들을 서로 말해주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리더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 부쩍 줄은 아이들 수효지만 그래도 요즘은 고정적으로 출석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  
다. 교회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주님은혜로 평생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로 자라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적은 기도제목에 보면 "예수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지만 웃음과 행복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어디 있든지 가족을 돌보아주세요", "엄마를 치료해주시고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은 돈은  
없지만 주님께서 보살펴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업을 다 마칠 수 있게 해  
주세요", "읽는 법을 배우게 해 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학교성적이 오르게 해주세요" 등으로 뜻밖에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아이는 꼭 한명뿐이었어요. 어른들보다 소박하고 단순한 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리  
조이스교회 아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교회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기를 위하  
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들어 유아세례를 많이 주게 되어 기쁩니다. 필리핀은 대부 대모제도가 있어서 아기들이 자라날 때에 영육 간에 돌보아주고 참으로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아이를 많이 안 갖는 세태에 우리나라도 이같이 대부 대모 제도같은 것을 배운다면 아이들이 건강한 관계들 가운데 더욱 밝게 자라게 되겠지요. 지난 주일 한 아기의 유아세례에서는 대부 대모가 무려 열여덟 분이나 되어서 교회가 잔치를 치르고 모두들 너무 기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례식과 유아세례식은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성례식으로서 대부 대모가 혹시 아직 불신자일 경우 교회예배에 참석시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결선서를 시키면서 자기 생활도 돌아보게 만드는등 너무 귀한 전도의 기회가 되는 셈이지요.

리조이스교회의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 MG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초등학교들과 신학교 학생들 그리고 선교사자녀들의 영어를 가르치는 외에 여섯 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의 성경공부까지 자원하여 기쁘게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특히 화통 옆에 서있는 듯 뜨거운 사막의 열기에 몸이 상할 정도이지만 기쁘게 주어진 사역에 매진하며 햇살같이 밝은 성격으로 그곳 선교사님들과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최선을 다하는 MG, 이제는 맡겨진 아프리카의 티칭 사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사월에는 리조이스로 무사히 건강하게 복귀해서 신학공부를 계속하며 리조이스를 강건하게 세우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삼십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부족한 종을 신뢰하시고 사랑해주시며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교동역자님들 한분한분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동역자님들 범사와 기업과 가정에 누르고 흔들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사랑받는 오은주 선교사 올림

## 기도제목



1. 선교사의 건강(이명치유, 왼쪽다리 발저림치유, 뇌혈관의 건강)을 지키시고 성도님들께 영적어미로써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 강건함을 늘 허락하소서.
2. 리조이스 리더들의 믿음과 범사와 생활을 지키시고 축복하소서.
3. 우물만 있는 무순교회에 수도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수속에 함께 하소서.
4. 어린이사역이 활발하며 청년부에 부흥을 주시고, 리조이스성산교회유치원과 제빵사역이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재개될 수 있게 하소서.
5. 막내여동생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수술이 의사파업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두통이 낮고 잘 수술받을 때까지 건강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꼭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6. 기도와 물질로 선교를 도우시는 선교동역자님들의 기도제목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7. 필리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대학의 주말수업이 없어지게 하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